

얀바루: 희귀한 생물 다양성 환경

얀바루는 오키나와 본섬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얀바루의 내륙부는 지대는 낮지만 험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약 80%는 아열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얀바루와 비슷한 규모의 산림은 비슷한 위도(북위 27 도 부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계절풍과 남쪽에서 흘러오는 '구로시오' 난류 때문에 이곳에는 상록활엽수가 울창합니다.

남북으로 32km, 동서로 12km 면적의 얀바루는 오키나와 본섬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놀랄 만큼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얀바루 지역은 일본 총면적의 겨우 0.1%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은 일본 조류 종류의 1/2 을 차지하고 재래종 개구리의 1/4 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류큐 열도가 아시아 대륙 및 일본 본토에서 분리되면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새인 멸종위기종, 얀바루쿠이나 및 오키나와딱따구리 등, 많은 고유종이 독자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얀바루의 울창한 산림에는 높이 솟은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의 나무부터 희귀한 양치식물, 섬세한 난까지 폭넓은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얀바루의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조간대종의 성장을 도와주며 해안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얀바루는 보전활동에 있어 중요한 보호구역이자 이곳의 독특한 생태계 탐구에 흥미를 가지는 자연애호가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